

Wei Yu Wayne Tan, *Blind in Early Modern Japan: Disability, Medicine, and Identi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2), 264 pp.*

이순영†

『근세 일본의 盲: 장애, 의료, 그리고 정체성 (*Blind in Early Modern Japan: Disability, Medicine, and Identity*)』는 제목 그대로 에도시대(1600~1868)의 일본의 “맹(盲, blind)”을 다룬 연구서이다.¹ 필자는 일제시대 장애사 연구자인데, 한국에 장애사 연구자가 많지 않다 보니 시공간적으로 낯선 영역을 다룬 이 책의 서평을 맡게 되었다. 에도시대 일본사는 필자의 세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서평에서는 저자의 사료 해석이나 일본사 맥락보다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라는 이론적 도구가 역사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 책의 문제제기를 통해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

책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먼저 장애학의 기본적인 논의 구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은 장애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분과학문으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별과 배제 등의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학은 장애의 원인을 신체나 정신에 나타난 상흔·훼손·마비·기능저하 등

* 서평 권유로 새로운 연구 영역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 준 강미량 선생님과 서평 초고에 대해 논평을 남겨 준 이희재, 강재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한국근현대사 박사과정, soonyon13@daum.net

¹ 이 책에서 *Blind*는 ‘맹인’이란 인격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체적 상태인 *Blindness*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문맥 및 전통사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맹인이나 맹, 실명 등으로 사용하였다.

손상(impairment)에 기인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장애가 있는 것, 즉 불능(不能)한(disabled)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사회적 구조에 주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고 누군가 입은 손상이 반드시 장애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장애에 접근한다.

이 책은 이러한 장애학의 관점을 에도시대 일본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 적용해 흥미로운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에도시대의 맹인은 특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enablement”), 제도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에 익숙해졌거나, 초기 사회(근대 이전 사회)가 '후진적'이어서 장애를 배척했다고 가정하는 현대 관객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2)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자들에게 역사 속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의 재검토를 제안한다.

본론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과 2장은 “맹”을 둘러싼 의학적 이해와 치료 문제를, 3장과 4장은 맹인 집단의 형성과 정체성을, 5장과 6장에서는 음악업과 침안업(鍼按業)이라는 직업적 실천을 다루었다.² 이 세 파트는 각각 손상의 의학적 지식, 사회 구조와 능력화의 관계, 직업적 실재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에도시대 맹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안과학 지식에 대해 살펴본다. 한방의학에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이해 틀에서 눈은 간과 연결된 기관으로 여겨졌고, 시력은 기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지막 가문과 같은 저명한 안과의 가문은 전통적 개념(“오륜(五輪)”, “팔곽(八廓)”)을 활용해 다양한 안질환을 체계화했으며, “청맹(淸盲, seimō)” 같은 상태에는 침술 기법을 포함한 복합 치료를 행했다.³ 18세기 후반 이후 난학이 도입되면서 광학적 설명과 안경 사용 같은 새로운 치료관이 등장했고, 한의학적 신체 구조 인식은 빠르게 대체되었지만 “독” 개념 등 증상에 대한 이해는 곧바로 포기

² 침안업은 침과 뜸을 담당하는 침구업(鍼灸業)과 안마업을 통칭하여 업종으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일제시기 조선에서도 맹인의 직업으로 통칭되었다.

³ 한자 표현을 통해 보면 “청맹”은 한국에서 청맹과니로 표현하는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청맹과니는 안구가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안구가 훼손되거나 하여 시야가 물리적으로도 차단된 고(瞽)와 구분할 때 사용한다.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새로운 지식 그 자체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절충적인 안과학 지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에도시대 안질환 치료 문화를 다루면서 대중 의료 문화의 발달이 맹인들에게도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했음을 주장한다. 18-19세기에 인쇄 문화와 소비 문화가 확장되면서, 맹인 뿐 아니라 대중 전체가 의료 정보에 접근하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자가치료 안내서와 여행 문헌의 유통, 치유 명소에 대한 정보 확산, 매약행상인의 전국적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다양한 치료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며, 일기와 편지에 나타난 개인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이 자신이 신뢰하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맹인이란 지위의 사회구조적 형성에 대해 논하는 두 번째 파트는 이 저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다. 3장은 중세부터 존재한 일본의 전통적 맹인동업조합 당도좌(當道座)의 정치적·제도적 성격을 분석하고 맹인들이 길드에 몸담는 것을 장애 정체성의 수용으로 이해한다.⁴ 당도좌는 14세기에 만들어져 맹인 남성만을 수용하는 자치 조직이었다. 초기 당도좌는 헤이큐쿠(平曲)를 연주하며 낭송하는 음악가들의 모임이었지만 도쿠가와 막부 이후에는 점차 다른 직업을 가진 맹인들도 포함되었다.⁵ 당도좌에 가입함으로써 당사자는 헤이큐쿠의 전승을 받을 수 있고 연주를 통해서 법벌이를 할 수 있었다. 또 그 구성원에게는 자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했다. 한편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납입금을 걷어 유지되는 동시에 그 내부에서 철저하게 위계화된 직급의 상승을 미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맹인 가운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당도좌의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당도좌가 제공한 “능력화”와 “제약”의 양면성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한편 4장은 당도좌에 속하지 않은 맹인들의 존재를 조명하며, 이 조합이 독점했던 권위가 어떻게 도전받았는지 보여준다. 우선 당도좌 바깥의 가장 큰 집단인 고녀(瞽女)는 당도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성들이 독립적

4 이 책에서는 맹인동업조합을 “길드(guild)”로 표기한다.

5 이 책에서는 헤이큐쿠를 “헤이케 음악(Heike Music)”으로 표기한다. 헤이큐쿠란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라는 서사시의 음악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으로 장거리 순회공연과 음악 활동을 지속하며 자신들만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직이었다. 맹승(盲僧)은 남성이었지만 당도좌 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채 종교적 권위를 기반으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찰의 통제를 받는 이들이었다. 저자는 여기서 당도좌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모든 맹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도쿠가와 막부의 맹인 관리전략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았다. 막부는 에도 후기의 도덕적 훈육 담론을 이용해서 모든 맹인에게 “모범적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당도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맹인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파트는 맹인들의 직업적 활동과 성취가 에도시대 일본에서 어떻게 능력화로 이어졌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부분이다. 5장은 음악업에 관한 장으로, 텍스트와 공연 문화를 통해 당도좌 내부 지식 생산 방식을 살핀다. 헤이교쿠는 전통적으로 구전되었지만, 에도시대에는 음악가와 비맹인 필사자들의 협업을 통해 텍스트로 정리되었고, 이는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 음악가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엘리트 음악가 오기노 치이치(荻野知一)는 뛰어난 기술과 폭넓은 후원 관계를 바탕으로 당도좌의 최고 계급에 도달했고, 그의 저술은 당도좌의 음악 전통을 체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였다. 또 음악 외 학문적 경력의 확립에도 당도좌 내 계급과 인맥망을 활용하였던 사례로 하나와 호키이치(塙保己一)를 소개하고 있다.

6장은 에도시대에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한 침안업이 맹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다룬다. 스기야마 와이치(杉山和一)의 도관 침술법은 일본 침술사 전체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 가문은 맹인 교육 체계를 정립했다. 안마업은 양생 문화 확산과 함께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고,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많은 맹인과 일부 농인에게도 전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도좌의 보호와 훈련 시스템을 통해 맹인 침술가와 안마사는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다룬다. 1871년 당도좌가 해체되며 맹인들이 딛고 있던 제도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서양 의학의 도입과 공중보건 체계 확장은 시각 장애를 근대적 의료 프레임 안에서 재정의했으며, 맹학교의 설립은 점자와 새로운 직업훈련 체계를 제도화했다. 침안업은 국

가 자격제도를 통해 재편되었고, 맹인 활동가들은 교육과 복지 권리 요구,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장애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조합이 제공하던 과거의 능력화 방식은 사라졌지만, 맹인들은 새로운 제도 속에서 또 다른 방식의 삶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면 결국 저자는 미국 학계에 근세 일본의 예시를 통해서 장애를 상대화할 수 있는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의학·사회·정치·문화사적 관점을 결합해 “맹인됨”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러 분과를 넘나들며 다양한 자료를 동원한 점 또한 큰 장점이다.

또 맹을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직업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맹인되기를 선택하면 그 직업이나 길드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능력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의미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신선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점은 한계가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부터 에도 사회에서 맹인들이 직업과 연합을 통해 자신만의 “맹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분적 정체성은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전략과 관계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수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status”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논지를 약하게 한다. 저자는 status를 최소 세 가지 의미로 혼용한다.

- ① 도쿠가와 신분제도로서의 status (7~8쪽의 “status rule”, “status group”)
- ② 직업적 정체성으로서의 status (“new occupationally defined status identity”, 91쪽),
- ③ 맹인이라는 신체적 상태로서의 status (“blind status”, 79쪽).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층위에서 작동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94쪽에서는 무사 신분을 가진 특권자는 “맹인 사회적 신분(blind social status)”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술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신분제 내 지위 변경인지, 장애 상태 인정에 따라 직능으로 바뀌면서 신분제도를 아예 벗어나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저자는

“blind status”를 때로는 “신분 범주(status category)”로, 다른 경우에는 “손상 상태(impairment condition)”로 오가며 사용하므로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신분제로서의 좌두(座頭, 당도좌의 기본 계급)는 오가타 아키코(緒方晶子)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영주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창조된 신분이 아니고, 맹인 집단 스스로가 생존 보장 및 생업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영주와 접촉·협상함으로써 사회집단으로 정착된 것이었다.⁶ 나아가 독자적인 신분적 위치를 지향하였던 당도좌 구성원의 경우 신분적 위치와 맹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맹인이라는 신체적 상태와도 맞아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신체적 상태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맹인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맹인되기”를 수행한 고녀나 맹승과 같은 다른 집단은 신체적 상태와 사회적 신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고녀와 맹승 또한 “맹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서술하는데(4장) 이는 사실상 장애 정체성이 신분적 “status”와 무관하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더하여 당도좌가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맹인 신분”이 한정적인 용법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함은 “enable” 개념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이 책에서 “enable”이라는 개념은 다소 방만하게 사용되었다. 우선 “disable”이 개인의 무능화가 아니라 장애인 집단의 무능을 생성하는 구조에 의한 결과라는 장애학의 논의에 기반한다면 “enable” 또한 개인 단위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개념화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오는 “enable” 됨에 관한 많은 사례는 특수한 엘리트의 성취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선택의 적극성과 결합되면 구조적인 제약은 흐려지고 개인의 성공 사례에만 주목하는 서사로 흐를 위험이 있다.

개념적 틀의 모호함과 더불어, 책의 서술 구조 또한 이완되어 있다. 이 책의 본론은 세 부분이 각각 분절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돌출감이 가장 큰 장이 2장이라고 보인다. 저자는 장애학에서 쉽게 보이는 의료적 집

6 에도 시대 신분제도와 당도좌 사이의 관계는 오가타 아키코의 연구에서 상세히 규명되었다. 이 연구는 장애학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나, 맹인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조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緒方晶子, “近世の座頭と当道座”(熊本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13)를 참조.

근을 회피하는 경향을 연구를 통해서 재평가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의학적 치치술과 당사자의 관계 맺음은 잘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는 이 시기 안과적 “손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졌고,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유지·변화시켰는가와 같은 경험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환자가 여러 치료법을 시도했다”는 서술에 그치지 않고, 실패를 포함한 치료의 결과를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또는 못했는지) 같은 과정의 서술에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2장에서 서술된 내용 대부분은 치유 방법의 확대 예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저자는 에도시대 일본의 맹인들이 직업을 통해 능력화될 수 있었고, 이 시기에 와서는 “맹”에 대한 중세의 부정적 함의가 사라졌다고 논한다(4쪽). 그렇다면 같은 시기 민중들이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탐색하면서 확대되어 가는 소비문화의 현장(2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해명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논증의 약점은 “선택”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더욱 분명해진다. 맹인 신분의 선택 문제도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자는 “맹인이 되었을 때” 당도좌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구마모토 번의 당도좌에서 받아들인 맹인의 대부분은 선천적 맹인, 늦어도 유년기에 실명한 경우였으며 후천적인 맹인은 당도좌에서 거부되었다.⁷ 이는 맹인의 직업적 독점화를 가능하게 하고, 특권 집단으로서의 권리를 내부에서만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은 맹인 당사자의 의지에만 달렸던 것이 아니라 당도좌라는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고녀에 주목한 제럴드 그로머(Gerald Groemer)의 저서 초반에 제시된 고바야시 하루(小林ハル)의 인터뷰를 보면 선천적 맹인이었던 그녀는 어머니가 음악을 배우러 가도록 집에서 내보내졌음을 이야기한다.⁸ 즉 어린 나이에 실명한 경우일수록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보호자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맹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가 맹인 당사자에게 권하는 선택에서 과연 얼마나 자신의 의견이 투영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결국 이 문제는 맹인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7 緒方晶子, 앞 논문, 125~127쪽.

8 Gerald Groemer, *Goze: Women, Musical Performance, and Visual Disability in Traditional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8-19.

묻는 것이다. 저자가 당도좌에 가입한 맹인들을 “disabled”하게 만드는 구조로서 지적하는 수수료 문제, 내부의 위계 관계와 승진을 위한 상납 문화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길드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내몰린 결과로 보이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선택이라는 용어의 함정은 2장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야기한다. 저자는 소비문화의 확대와 치료방법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각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효과 면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의미있게 존재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접근성 또한 신분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났을 것이다. 또 저자는 치료방식 선택까지도 그 자체도 “enabled”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과장되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에도시대 일본을 어떤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중심적인 시야와 달리 일본 근세의 맥락에서 맹의 존재를 읽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준거 기준이 근대 서구에 두어져 있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엿보이는데 첫째는 저자가 장애학적 접근을 표방하면서도 근대 의학적 측정 가능성 유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소수 집단(인종, 성별 등)의 역사적 서사를 이야기할 때 그 소수자성에 대해 정도를 논하지 않는다. 장애 문제에서 유난히 이러한 기준이 강조되는 것은 장애 문제를 의학의 렌즈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이런 시각을 상대화하기 위해 이미 서론에서 에도시대 일본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맹인(blind)’이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6)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서술을 반복하고 있다(78-95). 장애를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손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여전히 저자의 사고 속에서 장애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두 번째는 저자가 에도시대 일본을 비교하는 대조군으로서 다른 전근대사회나 동아시아권 국가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대 서구의 문화와 근세 일본의 상황은 차이가 나는 것이 도리어 당연해 보인다. 반면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맹인 점술가(盲卜), 맹악사(盲樂師)가 제도화되었고, 조선에서도 관

상감(觀象監)이 설치되어 점복(占卜)을 담당하는 맹인들이 소속돼 있었다. 임안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3세기 후반부터 맹인들이 점복을 중심으로 집단화하였고, 17세기에는 맹청(盲廳)이 만들어져 국가 제도와 연결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⁹ 이처럼 상당히 유사한 경험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시공간적 배경이 “기능적으로 고유하다(uniquely functional)”⁽²⁵⁾는 주장은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미국과 한국 학계의 연구 전통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념적 혁신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이 책은 비서구 사례를 통해 장애 개념을 상대화하고, 제도·의학·문화를 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반면 실증적 엄밀함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개념 정의의 모호함과 논증 구조의 취약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장애학과 역사학의 방법론을 접목하였던 시도는 좋은 힌트가 된다. 기존의 사료를 거슬러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장애학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역사를 풍부하게 서술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장애사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며, 이 책과 같은 시도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9 林安秀, “韓國 盲人 職業史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52-54. 이런 맹인의 역사쓰기는 임안수의 연구 방법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술 전통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구술 전통과 맹인사에 대한 연구로는 주윤정, 『보이지 않은 역사』 (들녘, 2020)의 서문과 5장 “시각장애인의 구술전통과 이야기의 힘”을 참조할 것.